문집과 장지문등 전실된

돈간재 權大載공 비문 등 나와

규장각 權奇奭 학예사가 찾아내

▲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율전으로 이장한 돈간재공 묘소

돈간재敦艮齋 호조판서 권대재權大載공은 숙종조 격심한 당쟁사화 시대에 남인南人으로서 불우한 사환仕宦을 하며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그 시문은 물론 장지문조차도 전하는 게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번에 그 묘비문과 명銘, 시서詩序 및 증시贈詩 1편이 발견되어 나왔다. 비문은 옥천玉川 조덕린趙德 이 지은 것으로 ‘ 옥천선생문집玉川先生文集 ’ 14권에 실려 있는 것이고 돈간재명敦艮齋銘은 일암一庵 신몽삼辛夢參이 지은 것인데 ‘ 일암선생문집一庵先生文集 ’ 6권에서 나왔다. 돈간재시서敦艮齋詩序는 미수眉 허목許穆이 지은 바인데 미수의 ‘ 기언별집記言別集 ’ 8권에서 발견되었다. 증시 칠언절구七言絶句 1수는 존재存齋 이휘일李徽逸이 지은 것인데 ‘ 존재선생문집存齋先生文集 ’ 1권에서 찾아냈다. 이렇게 여러 관련 시대의 문적을 광범히 수탐하여 이상의 4건을 발굴한 것은 본보 객원편집위원으로서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있는 권기석權奇奭 학예사이다.

돈간재는 추밀공파 정헌공계 시조후 24세로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휘 복復의 7대손, 남강공南岡公 휘 상常의 증손, 충정공忠貞公 협 의 손자이고 진사進士 증이조판서 위중偉中의 1남이다. 그 묘소가 원래 지금의 서울 구로구 독산동인 경기 시흥군 동면東面 독산리禿山里 어로御路 서록西麓에 간좌艮坐로 있었는데 이곳이 도시로 개발됨에 따라 서울 구로구 궁동宮洞의 조부 충정공 묘산에 있는 선고 진사공 묘하로 이장했었다. 그런데 이 궁동의 선산이 산화山禍로 전체가 타성인 소유로 넘어감에 따라 항구적인 수호대책을 위해 그 3남 남포공南圃公 분바의 후손이 세거하는 전남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율전栗田으로 지난 4월에 이장하게 되었다. 그 경황을 본보 지난달 127호 6,7면의 ‘ 순천승주읍 권병안의 병장 생가복원 ’ 기사의 부제 ‘ 돈간재공 부자 묘소 타산에서 이장하고 ’로 상보한 바 있다. 이 기사에서 돈간재공의 생애에 대해서 대략 소개한 바 있는데 2004년판 안동권씨 전산대동보에 실린 공의 주기註記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자字는 중거仲車이고 호는 돈간재敦艮齋、간은艮隱、소천蘇川 또는 용문산인龍門山人이며 광해군 12년, 1620년에 출생하였다. 인조 24년, 1642년의 식년시式年試에 서울 거주 유학幼學으로서 생원生員 2등 제8인으로, 진사進士 2등 제9인으로 양장兩場에 합격하였다. 효종 4년, 1653년 11월 16일의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을과乙科 제2인으로 급제하였다. 승문원承文院에 들었다가 승정원承政院 주서注書 등의 청요직을 거치고 효종 9년, 1658년 9월 1일의 문과중시文科重試에서 정자正字로서 병과丙科 제5인으로 급제하였다. 성균관 전적田籍、병조좌랑佐郞、창평현감昌平縣監、전라도 도사都事、공산公山현감、대구 판관大邱判官 등의 한직으로 전전하면서 파직을 당하기도 하며 불운을 겪다가 숙종 즉위초에 형조참의刑曹參議로 발탁되고 승지가 되었으며 경상도 순무사巡撫使로 나갔다가 전라도 관찰사가 되고 내직으로 들어와 대사헌、대사간을 거듭 임직하였다. 숙종 5년, 1679년에 송시열宋時烈을 엄중처벌하려다 준격峻激한 논의로 혼란을 조성한다 하여 광주光州로 유배되고 이듬해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영변寧邊으로 이배되었다가 숙종 9년, 1683년에 몽유蒙宥로 돌아왔다. 숙종 15년, 1689년의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다시 등용되어 제학提學을 거쳐 호조판서에 이르러 기로사耆老社에 들었는데 그해 4월 22일에 졸하니 수는 70세였다. 평생에 종형從兄 석담공石潭公 대운大運과 정치적 진로를 같이 하여 당론黨論의 승패에 따라 부침과 영욕을 겪었다. 임종에는 조정에서 왕비를 폐한다는 소식이 있자 직간直諫으로 사절死節할 일을 종형 석담공에게 부탁하고 또 자제에게 명하여 반대하는 상소를 받아쓰게 하고 구호口號하다가 절반에 못미쳐 운명하였다. 서화書畵에 능하고 활발한 저술로 독역수차讀易手箚、중용변의中庸辨疑、사림평요士林評要、남위록南爲錄、광산록光山錄、용문록龍門錄、초산록草山錄을 남겼다. 현종 1년, 1417년 9월 1일자 실록에 호남우도湖南右道의 감시監試에서 발생한 불상사로 상시관上試官으로서 파직되는 기사가 나오고 11일에 그 일로 전임 전라도사都事로서 거듭 탄핵되고 16일에 나치추국拿致推鞫된다. 현종 7년, 1666년 12월 11일에 공산公山현감 겸판관兼判官으로 송결訟決을 잘못한 일로 나국拿鞫되고 12월 27일에 경연經筵에서 또 그 일로 논핵된다. 현종 15년, 1674년 3월 28일에는 동래부사東萊府使가 되고 숙종 1년, 1675년 1월 13일에는 승지承旨가 된다. 1월 18일과 28일, 2월 6일、7일、21일, 3월 1일자에 승지로 나오고 3월 9일에 경상도 순무사가 되어 나간다. 5월 25일에 다시 승지로 나오고 5월 26일에 다시 승지로 나오며 6월 3일에는 경상도 순무사로서 돌아와 복명한다. 6월 4일자에는 청탁으로 갈린 남인南人에서 허적許積、권대운權大運을 수반으로 하는 탁남濁南의 1원이 된 것으로 나오고 5일과 6일에도 나오다가 9월 29일에는 전라감사로 나온다. 10월 18일과 22일자에 전라감사로 나오고 11월 17일에 논핵되는 기사가 나오며 18일과 19일、21일에 변호 또는 구원하는 기사가 나온다. 12월 1일에는 파직되었다가 철회되는 기사가 나오고 12월 2일에 이 일로 논란이 일어난다. 숙종 2년, 1676년 7월 1일에 다시 승지가 되고 9월 6일에 대사간大司諫이 되며 10월 10일에 김수항金壽恒의 중벌을 청하고 11월 20일에 다시 승지를 배한다. 11월 20일에 명민하고 문장에 능함으로 청나라에 가는 변무사辨誣使의 부사副使가 되면서 자급資給이 오르고 27일에 다시 대사간이 되며 숙종 3년, 1677년 1월 10일에도 대사간으로 나온다. 3월 22일에 대사헌大司憲이 되고 4월 1일에는 부호군副護軍으로서 비변사備邊司의 일원으로 임금에게 건의한다. 4월 5일의 경연에서 기사가 나오고 9월 16일에 진주사陳奏使의 부사로 연경燕京에 갔다가 돌아와 복명한다. 22일에는 그 공으로 가자加資가 되었다가 상이 지나치다고 철회되고 10월 22일에 비변사의 대신大臣으로 왕을 인견하며 11월 5일에 대사헌을 배한다. 13일과 12월 4일에 대사헌으로 나오고 11일에 경기관찰사가 되며 숙종 4년, 1678년 11월 22일에 대사간이 되고 숙종 5년, 1679년 3월 12일에 다시 대사간을 배한다. 18일과 19일、25일에 대사간으로 나오고 4월 19일에 대사헌이 되고 5월 25일에는 예조참판禮曹參判으로 나온다. 6월 4일에는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로 나오고 6월 8일、13일、14일에는 대사간으로 나온다. 6월 15일과 7월 14일자에 논핵이 되고 18일에 변호되며 27일에 논핵되고 30일과 10월 2일、5일자에는 유배되어 있는 기사가 나온다. 숙종 6년, 1680년 6월 10일과 23일, 7월 3일자에 논핵되는 기사가 나오고 23일에 영변으로 이배되며 숙종 8년, 1682년 1월 27일에 양이量移되며 논핵된다. 10월 21일에 허새許璽의 옥사에 연루되고 숙종 9년, 1683년 1월 25일에 사유赦宥되며 숙종 10년, 1684년 6월 15일자에 예조참판시의 업적이 나온다. 숙종 15년, 1689년 2월 3일자에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이 되고 2월 5일에 호조판서가 된다. 3월 1일에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로서 왕을 청대請對하고 3월 17일에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로서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을 초할 것을 건의하고 3월 28일에 송시열과 김수항의 처형을 상소한다. 4월 13일에 호조판서로서 임금의 인견을 받고 18일에 동지경연사로 주강晝講에 나가며 22일에 졸기卒記가 나오는데 ‘ 호조판서 권대재가 졸하였다. 향년은 70세이다. 권대재는 성품이 경망하여 화를 잘 내고 당여黨與를 위해 사력死力을 다했는데 시기를 이용해 다시 나아가 갑자기 탁지度支에 발탁되었다. 운명할 때 천둥번개가 크게 치고 번갯불이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도하都下에서는 벼락이 내렸다는 소문이 번졌다 ’고 나온다. 이같은 졸기는 뒤에 당론이 다른 사관史官이 쓴 것이다. 조덕린趙德隣의 옥천집玉川集,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31、32、33、35권에 사적이 실려 있다.

배 정부인貞夫人 신평이씨新平李氏는 정랑 잠潛의 딸이고 조부는 남대南臺 문명文冥, 증조는 문과 참판 거뻐, 외조는 첨지중추 청주淸州 경지慶遲이다. 묘소는 경기 시흥군 동명 독산리 서록 어로御路 서편에 간좌艮坐로 합부되고 종질從姪 제남濟南 권환權 이 비문을 지었는데 뒤에 서울 구로구 궁동宮洞의 선고묘소 아래로 면봉緬封하였다.

위의 기록에서 공의 보첩상 주기註記와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졸기卒記는 아주 다르다. 그래서 공의 당질 제남공이 지은 비문이 어떤 내용인지 매우 궁금했는데 그 비문을 찾지 못하는 것이 한이었다. 그리고 공의 묘소에는 비 자체가 서 있지 않은 터였다. 그런데 이번에 뜻밖에 옥천 조덕린의 문집에서 공의 비문이 나온 것이다. 이것은 돈간재 연구에 실로 막중한 자료가 발굴된 것이다. 종질로서 대사성에 대사간、참판 등을 지낸 제남공이 비문을 지었다는데 어찌 옥천 조덕린이 지은 비문이 또 있어서 나오게 된 것일까. 다소 의문이나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옥천 조덕린은 돈간재보다 38년 후인 효종 9년, 1658년에 태어나 영조 13년, 1737년까지 80세를 산 인물이다. 한양조씨漢陽趙氏로 자가 택인宅仁, 호가 옥천이며 숙종 3년, 1677년에 20세로 사마시를 하고 1691년에 34세로 중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설서說書、교리校理、사간司諫 등 청환을 지내고 영조 1년, 1725년에 노론과 소론의 당론이 심해지자 붕당정치의 폐해를 논하는 10여조의 소를 올렸다가 노론을 비난하는 내용이 있어 당쟁을 격화시킨다 하여 함경도 종성鍾城에 유배되었다. 70 가까운 나이로 3년 적거를 하고 1727년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소론이 집권하게 되자 유배에서 풀려 홍문관 응교應敎가 되었으나 서울에 올라와 숙사肅謝하고 낙향했다. 1728년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서 영남호소사嶺南號召使에 피임되고 의용병을 규합해 대구에 갔다가 난이 평정되어 파병罷兵하였다. 이 공으로 동부승지에 임용되고 경연에 참여했으나 곧 노년으로 사직하고 환향하여 학문에 정진하니 원근의 제자가 많이 모였다. 1736년에 서원의 남설을 반대하는 소를 올리니 전자의 소와 연관되어 노론의 탄핵을 받고 제주로 유배되어 가던 중 강진에서 운명했다. 그의 상소는 수차에 걸친 소론의 재집권을 위한 난언亂言과 벽서壁書 사건의 실마리를 만들기도 하였다는 평을 들었다. 저서로 옥천문집玉川文集 18권을 남겼다.

이러한 조덕린이 어떤 연유로 돈간재의 비문을 지었는지